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1분기)

2021. 5.

※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1분기)」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목 차 ▶

요 약

1. 최근 고용 동향 / 1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3

가.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 3

나.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 6

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 / 9

3. 결론 및 시사점 / 12

< 요약 >

1. 최근 고용 동향

- ▶ 2021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1분기보다 38.0만명 감소하며 2020년 2분기 이후 4분기(2020.2q~2021.1q) 연속 감소
-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부진은 그 강도 측면에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보다는 약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보다는 큰 것으로 분석

구분	고용 감소기간(전년동기비)	고용 감소폭(전년동기비)
IMF 외환위기	5분기(1998.1q~1999.1q)	5분기 평균 113.7만명
금융위기	4분기(2009.1q~2009.4q)	4분기 평균 8.8만명
코로나19 위기	4분기(2020.2q~2021.1q)	4분기 평균 38.6만명

- ▶ 다만 2021년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보다 31.4만명 증가하여 13개월만에 (+)로 전환. 2021년 4월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고용이 수치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가.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 ▶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이 증가는 상용직이나 청년층이 아니라 경기 상황 변화에 신속적 대응이 가능한 임시일용직과 정부 일자리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60세 이상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

⇒ 2021년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2020년 1분기보다 20.6만명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은 오히려 3.6만명 증가

⇒ 다만 신규채용 증가(+3.6만명)는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증감없음)보다는 임시일용직(+3.7만명)이, 연령별로는 60세 미만(-2.9만명)보다는 60세 이상(+6.5만명)이 주도(전년동기비)

- ▶ 1년 이상 근속자 중 상용직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증가세 지속*

* '19년 1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증가(전년동기비)

나.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 ▶ 코로나19 충격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전체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 고용이 질적으로 부진
 - ⇒ 최근 4분기(2020.2q~2021.1q) 연속 전체 취업자는 감소(평균 -38.6만명) 했지만, 동기간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평균 3.0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세는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남.

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증가세

-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교적 구직기간이 짧고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구직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근로시간이 적어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불안전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도 늘어나며 고용불안 심화
 - ⇒ 2021년 1분기 증가한 실업자 21.8만명 중 85.3%(18.6만명)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 또한 늘어난 실업자(21.8만명) 중 80.3%(17.5만명)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전년동기비)
 - ⇒ 2021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38.0만명 감소했지만, 불안전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오히려 25.2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불안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3. 결론 및 시사점

- ▶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며 전반적 고용이 질적으로 부진하고,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가 증가하며 구직난과 고용불안 심화
- ▶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
 - ⇒ (민간부문 활력 증진)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고용 창출력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킬 필요(예. 2-for-1 Rule 도입 검토)
 - ⇒ (고용보험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에 대한 자원분배 비율 확대로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히 찾도록 뒷받침해야 함.

1 최근 고용 동향

① **(최근 동향)** 전체 취업자 수는 2021년 1분기에 2020년 1분기보다 38.0만명 줄어들면서 2020년 2분기 이후 4분기(2020.2q~2021.1q) 연속 감소. 특히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4분기(2020.2q~2021.1q) 연속 감소

※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동시에 4분기 연속 감소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시절 5분기('98.1q~'99.1q) 연속 감소 이후 처음(전년동기비)

< 표 1. 최근 분기별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2020.1q	2020.2q	2020.3q	2020.4q	2021.1q
전체	28.8만명	-40.7만명	-31.4만명	-44.1만명	-38.0만명
임금근로자	31.1만명	-26.2만명	-15.1만명	-33.0만명	-20.6만명
비임금근로자	-2.3만명	-14.5만명	-16.3만명	-11.1만명	-17.4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② **(경제위기별 고용 충격)**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근 고용 부진은 그 강도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하지만, 금융위기보다는 큰 것으로 분석

※ '21년 1분기 기준. '21년 2분기에도 고용이 감소(전년동기비)할 경우 경제위기별 고용 충격 재분석 필요

- (감소기간) IMF 외환위기 때는 5분기(1998.1q~1999.1q) 연속 감소했고, 금융위기 때는 4분기(2009.1q~2009.4q) 연속 감소. 코로나19 위기는 4분기(2020.2q~2021.1q) 연속 감소 중(전년동기비)
- (감소폭)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때는 5분기 동안 평균 113.7만명 줄어들었고, 금융위기 때는 4분기 동안 평균 8.8만명 감소. 코로나19 위기는 4분기 동안 평균 38.6만명 감소(전년동기비)

< 표 2. 경제위기별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비교 >

코로나19 위기	2020.2q	2020.3q	2020.4q	2021.1q	2021.2q	
	-40.7만명	-31.4만명	-44.1만명	-38.0만명	?	
IMF 외환위기	1998.1q	1998.2q	1998.3q	1998.4q	1999.1q	1999.2q
	-92.5만명	-130.2만명	-151.4만명	-136.4만명	-57.9만명	18.6만명
금융위기	2009.1q	2009.2q	2009.3q	2009.4q	2010.1q	
	-14.0만명	-15.5만명	-3.0만명	-2.5만명	12.4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③ **(2021년 3월 고용 동향)** 다만 2021년 3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보다 31.4만명 증가하여 13개월만에 (+)로 전환. 이에 대해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일부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의견(참고 1. 참조)과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아직 회복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

* 비교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적 착시현상

참고 1. 2021년 3월 고용 동향 분석(기획재정부)

■ 수출 · 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

- ▶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1.4만명 증가하고 민간 일자리 상황 개선
 -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10)-42.1 (11)-27.3 (12)-62.8 ('21.1)-98.2 (2)-47.3 (3)31.4
- ▶ 청년층은 인구감소(-13.6만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14.8만명 증가하고 청년 고용률이 2.3%p 상승
 -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 ('20.12)-30.1 ('21.1)-31.4 (2)-14.2 (3)14.8
 - ※ 청년층 고용률(%) : ('20.12)41.3 ('21.1)41.1 (2)42.0 (3)43.3[전년비 +2.3%p]
- ▶ 수출 · 투자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둔화가 지속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서비스업 고용도 큰 폭 증가 전환
 -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 ('20.11)-26.6 (12)-60.4 ('21.1)-89.8 (2)-50.2 (3)26.2
- ▶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해온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증가 전환
 - ※ 상용직 근로자(전년비, 만명) : ('20.12)0.5 ('21.1)3.6 (2)8.2 (3)20.8
 - ※ 임시·일용직근로자(전년비, 만명) : ('20.12)-52.1 ('21.1)-79.5 (2)-39.7 (3)24.7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가 임사·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① **(근속기간별 · 종사상지위별)** 2021년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작년 1분기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신규채용*(근속기간 3개월 미만) 된 임금근로자는 증가했으나, 이 고용 증가분 모두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 근속 1년 이상 상용직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증가세 지속

*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로 간주(한국노동연구원의 「매월 고용 동향(‘13.6~’17.1)」 분석 방식을 활용)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2021년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는 2020년 1분기보다 20.6만명 줄어들었으나, 신규채용(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은 오히려 3.6만명 증가(참고 2. 참조)

< 표 3.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근속 3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속 3~12개월 미만	근속 1년 이상
2019.1q	22.3만명	13.5만명	14.5만명	-5.8만명
2019.2q	29.5만명	2.6만명	27.7만명	-0.8만명
2019.3q	42.7만명	2.7만명	29.8만명	10.2만명
2019.4q	48.2만명	5.7만명	15.1만명	27.3만명
2020.1q	31.1만명	2.3만명	-0.9만명	29.7만명
2020.2q	-26.2만명	-17.7만명	-24.9만명	16.3만명
2020.3q	-15.1만명	4.9만명	-26.7만명	6.6만명
2020.4q	-33.0만명	-6.2만명	-16.2만명	-10.6만명
2021.1q	-20.6만명	3.6만명	-16.7만명	-7.6만명

주 :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다만, 2021년 1분기 신규채용(근속기간 3개월 미만) 된 임금근로자 증가분 3.6만명은 모두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분석(전년동기비)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을 우선 채용한 것으로 추정

⇒ **(근속기간 1년 이상)** 2021년 1분기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임시·일용직은 2020년 1분기보다 23.3만명 감소했으나, 상용직은 오히려 15.7만명 증가. 특히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임시·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상용직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증가세 지속

< 표 4. 근속기간별·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단위 :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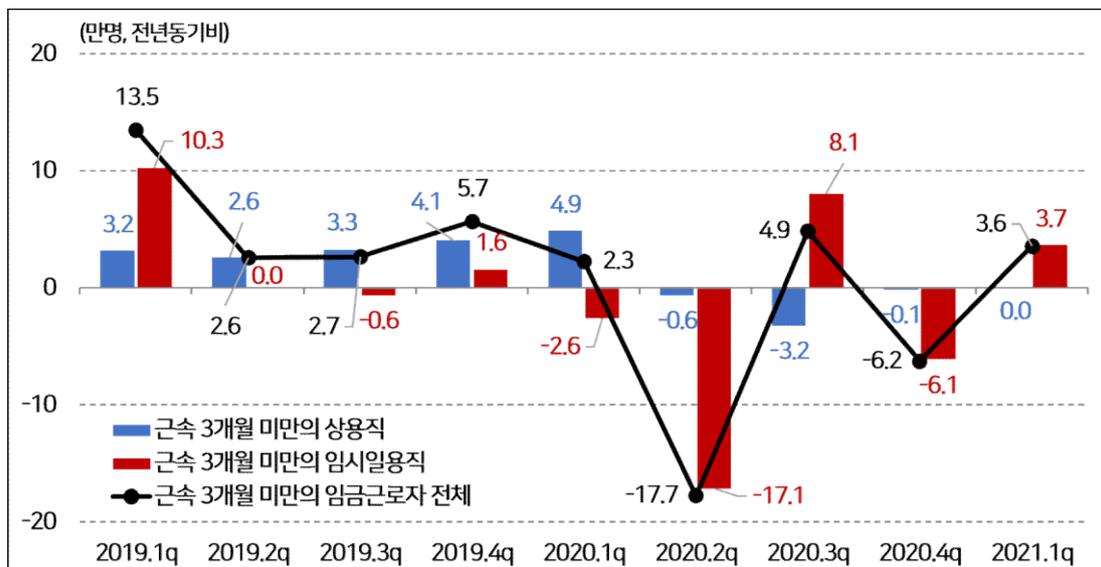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임금 근로자	근속 3개월 미만			근속 3~12개월 미만			근속 1년 이상		
		전체	상용	임시·일용	전체	상용	임시·일용	전체	상용	임시·일용
2019.1q	22.3	13.5	3.2	10.3	14.5	16.6	-2.0	-5.8	13.6	-19.4
2019.2q	29.5	2.6	2.6	-	27.7	14.9	12.8	-0.8	17.1	-18.0
2019.3q	42.7	2.7	3.3	-0.6	29.8	22.6	7.1	10.2	23.1	-12.9
2019.4q	48.2	5.7	4.1	1.6	15.1	13.2	2.0	27.3	43.0	-15.7
2020.1q	31.1	2.3	4.9	-2.6	-0.9	4.4	-5.4	29.7	48.6	-18.9
2020.2q	-26.2	-17.7	-0.6	-17.1	-24.9	2.4	-27.2	16.3	36.3	-20.0
2020.3q	-15.1	4.9	-3.2	8.1	-26.7	-9.2	-17.5	6.6	36.5	-29.9
2020.4q	-33.0	-6.2	-0.1	-6.1	-16.2	-14.4	-1.8	-10.6	16.4	-27.0
2021.1q	-20.6	3.6	-	3.7	-16.7	-4.8	-11.9	-7.6	15.7	-23.3

주 : 1.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2.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 신규채용(근속 3개월 미만) 된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주 : 1. '0.0'은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2. 각 수치는 반올림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② **(근속기간별 · 연령별)** 2021년 1분기 신규채용(근속기간 3개월 미만) 된 임금근로자 증가는 '60세 이상'이 주도. 근속 1년 이상의 '60세 이상' 근로자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증가세 지속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2021년 1분기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임금근로자 중 '60세 미만'은 작년 1분기보다 2.9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오히려 6.5만명 증가.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추정

⇒ **(근속기간 1년 이상)** 2021년 1분기 근속기간 1년 이상의 '60세 미만' 근로자는 2020년 1분기보다 13.9만명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근로자는 오히려 6.3만명 증가. 특히 근속기간 1년 이상의 '60세 이상' 근로자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증가세 지속

< 표 5. 근속기간별 ·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단위 : 만명)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근속 3개월 미만			근속 3~12개월 미만			근속 1년 이상		
		전체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60세 미만	60세 이상
2019.1q	22.3	13.5	4.9	8.7	14.5	9.7	4.8	-5.8	-11.7	5.9
2019.2q	29.5	2.6	3.9	-1.3	27.7	12.0	15.7	-0.8	-9.4	8.5
2019.3q	42.7	2.7	0.7	2.0	29.8	17.1	12.7	10.2	-1.2	11.4
2019.4q	48.2	5.7	2.9	2.8	15.1	1.5	13.6	27.3	11.1	16.2
2020.1q	31.1	2.3	-6.3	8.6	-0.9	-7.9	7.0	29.7	11.8	17.9
2020.2q	-26.2	-17.7	-14.7	-3.0	-24.9	-27.8	2.9	16.3	-2.3	18.6
2020.3q	-15.1	4.9	0.3	4.6	-26.7	-32.8	6.1	6.6	-11.9	18.5
2020.4q	-33.0	-6.2	-6.1	-0.1	-16.2	-23.9	7.7	-10.6	-24.6	14.0
2021.1q	-20.6	3.6	-2.9	6.5	-16.7	-15.0	-1.7	-7.6	-13.9	6.3

주 :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참고 2.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추이

■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2021년 1분기 217.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9% 차지(전년동기비 +3.6만명, +0.3%p)

< 최근 3년('19~'21)간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추이(각연도 1분기 기준)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근속 3개월 미만	근속 3~12개월 미만	근속 1년 이상
'19.1q	1,996.4만명 (100%)	211.8만명 (10.6%)	344.9만명 (17.3%)	1,439.6만명 (72.1%)
'20.1q	2,027.5만명 (100%)	214.2만명 (10.6%)	344.0만명 (17.0%)	1,469.3만명 (72.5%)
'21.1q	2,006.9만명 (100%)	217.8만명 (10.9%)	327.3만명 (16.3%)	1,461.7만명 (72.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 ① **(전체)**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1주당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취업자(초단시간 일자리)는 증가세(2020.2q 제외)
- 2019년 들어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폭 확대(참고 3. 참조)
 -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2020.2q~2021.1q) 연속 전체 취업자는 감소(평균 -38.6만명)했지만, 동기간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평균 3.0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표 6.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전체	주15시간 미만	주15시간 이상	일시휴직
2019.1q	17.7만명	13.7만명	8.8만명	-4.9만명
2019.2q	23.7만명	23.9만명	-0.4만명	0.3만명
2019.3q	36.6만명	20.8만명	9.4만명	6.5만명
2019.4q	42.2만명	24.5만명	18.1만명	-0.5만명
2020.1q	28.8만명	7.7만명	-24.7만명	45.8만명
2020.2q	-40.7만명	-8.7만명	-104.5만명	72.5만명
2020.3q	-31.4만명	1.2만명	-59.3만명	26.6만명
2020.4q	-44.1만명	0.7만명	-72.0만명	27.2만명
2021.1q	-38.0만명	18.7만명	-31.6만명	-25.2만명
평균	-38.6만명	3.0만명	-66.9만명	25.3만명

주 :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참고 3.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폭은 '16~'17년간 평균 4.7만명에서 '18~'19년간 평균 17.1만명으로 증가. '20년은 코로나19로 전체 취업자가 21.8만명 감소했으나,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0.2만명 증가(전년비)

< 최근 5년('16~'20)간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추이 >

구분	전체	주15시간 미만	주15시간 이상	일시휴직
'16	23.1만명	3.8만명	18.6만명	0.7만명
'17	31.6만명	5.6만명	29.1만명	-3.1만명
'18	9.7만명	13.5만명	-5.8만명	2.1만명
'19	30.1만명	20.7만명	9.0만명	0.3만명
'20	-21.8만명	0.2만명	-65.1만명	43.0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참고 4. 최근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원인

-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노인·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담을 견뎌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
 - ▶ **[최저임금]** ‘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경총 추정치)로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수준*
 - * 우리나라와 G7 국가(이탈리아 제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韓] 62.4 [佛] 61.3 [英] 57.1 [加 : 캐나다] 50.0 [獨] 48.1 [日] 44.3 [美] 30.7
 - ▶ **[코로나19 충격]** 소상공인의 70.8%가 ‘20년 매출이 ‘19년보다 감소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37.4%에 달함(소상공인연합회, ‘20.12).

② **(연령별, 사업장 규모별)**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는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남.

- (연령별) 2019년 1분기 이후 60세 미만의 전체 취업자는 지속 감소한 반면, 60세 미만의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비)

⇒ 2019년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60세 미만’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60세 이상’은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전년동기비)

* 최저임금 인상률(%), 전년비, 적용연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 7.3(‘17)→ 16.4(‘18)→ 10.9(‘19)→ 2.87(‘20)→ 1.5(‘21)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전체 취업자 감소가 지속된 4분기(2020.2q~2021.1q) 동안 60세 미만의 전체 취업자는 평균 69.5만명 줄어들었으나, 60세 미만의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평균 3.0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2021년 1분기 60세 이상의 주15시간 미만 취업자가 작년 1분기보다 12.7만명 증가한 것은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추정

*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80만명 이상 채용계획(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1.1.8)

< 표 7. 연령대별 전체 및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주15시간 미만	전체 취업자	주15시간 미만
2019.1q	-15.9만명	7.5만명	33.6만명	6.2만명
2019.2q	-11.7만명	13.9만명	35.4만명	10.0만명
2019.3q	-1.8만명	12.5만명	38.3만명	8.3만명
2019.4q	-1.2만명	11.0만명	43.5만명	13.4만명
2020.1q	-18.3만명	4.0만명	47.1만명	3.7만명
2020.2q	-71.3만명	2.5만명	30.5만명	-11.2만명
2020.3q	-70.9만명	1.3만명	39.4만명	-
2020.4q	-77.3만명	2.4만명	33.2만명	-1.7만명
2021.1q	-58.3만명	6.0만명	20.2만명	12.7만명
평균	-69.5만명	3.0만명	30.8만명	-0.1만명

주 :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사업장 규모별) 코로나19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

⇒ 최근 4분기(2020.2q~2021.1q) 동안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취업자는 평균 47.2만명 줄어들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평균 27.0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2021년 1분기 늘어난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18.7만명 중 96.3%인 18.0만명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전년동기비)

< 표 8. 사업장 규모별 전체 및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취업자	주15시간 미만	전체 취업자	주15시간 미만
2019.1q	17.4만명	13.1만명	0.3만명	0.6만명
2019.2q	19.7만명	23.1만명	4.0만명	0.8만명
2019.3q	26.4만명	19.6만명	10.3만명	1.2만명
2019.4q	28.5만명	24.5만명	13.7만명	-
2020.1q	16.1만명	7.9만명	12.7만명	-0.2만명
2020.2q	-46.9만명	-8.9만명	6.2만명	0.1만명
2020.3q	-36.1만명	1.4만명	4.7만명	-0.2만명
2020.4q	-51.9만명	0.2만명	7.8만명	0.6만명
2021.1q	-54.0만명	18.0만명	15.9만명	0.7만명
평균	-47.2만명	2.7만명	8.7만명	0.3만명

주 :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

① **(실업자)** 최근 구직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업 경험을 가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과 구조조정 반영

- **(구직기간별)** 2021년 1분기 실업자는 138.0만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1.8만명 증가.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자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구직의 어려움 시사

⇒ 2019년 3분기 이후 줄어들던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그 증가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습

*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 추이(명, 질병관리청)

: 9,460('20.1q)→ 12,706(2q)→ 23,664(3q)→ 58,781(4q)→ 101,524('21.1q)

⇒ 2021년 1분기 증가한 실업자 21.8만명 중 85.3%(18.6만명)를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가 차지(전년동기비)

< 표 9. 구직기간별 실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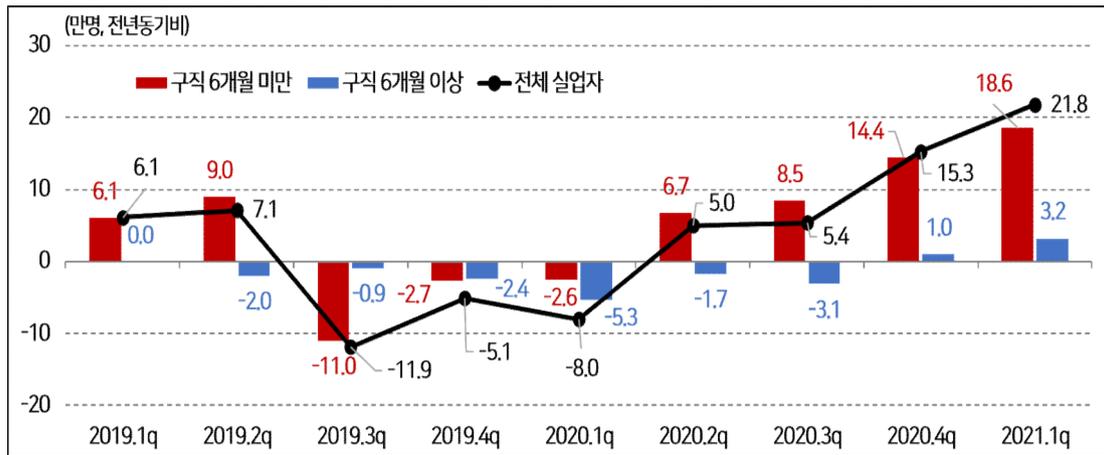
구분	전체 실업자	구직기간 6개월 미만	구직기간 6개월 이상
2019.1q	6.1만명	6.1만명	-
2019.2q	7.1만명	9.0만명	-2.0만명
2019.3q	-11.9만명	-11.0만명	-0.9만명
2019.4q	-5.1만명	-2.7만명	-2.4만명
2020.1q	-8.0만명	-2.6만명	-5.3만명
2020.2q	5.0만명	6.7만명	-1.7만명
2020.3q	5.4만명	8.5만명	-3.1만명
2020.4q	15.3만명	14.4만명	1.0만명
2021.1q	21.8만명	18.6만명	3.2만명

주 : 1.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2.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2. 구직기간별 실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주 : 1. '0.0'은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2. 각 수치는 반올림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취업 경험 유무별) 최근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유경험)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구직자들이 구조조정 및 전직과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 2019년 3분기 이후 줄어들던 1년 이내 취업 경험 있는 실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그 증가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습

⇒ 2021년 1분기 증가한 실업자 21.8만명 중 80.3%(17.5만명)를 1년 이내 취업 경험 있는 실업자가 차지

< 표 10.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전체 실업자	취업 무경험 실업자	취업 유경험 실업자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 증감(전년동기비)	
				1년 이내	1년 이전
2019.1q	6.1만명	-2.1만명	8.2만명	12.9만명	-4.8만명
2019.2q	7.1만명	0.7만명	6.4만명	8.5만명	-2.1만명
2019.3q	-11.9만명	-0.5만명	-11.4만명	-8.7만명	-2.6만명
2019.4q	-5.1만명	-0.2만명	-4.9만명	-4.7만명	-0.2만명
2020.1q	-8.0만명	0.2만명	-8.1만명	-6.6만명	-1.5만명
2020.2q	5.0만명	-2.3만명	7.4만명	10.1만명	-2.7만명
2020.3q	5.4만명	-	5.4만명	7.5만명	-2.1만명
2020.4q	15.3만명	-0.5만명	15.8만명	15.2만명	0.5만명
2021.1q	21.8만명	-1.1만명	22.9만명	17.5만명	5.4만명

주 : 1.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2.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② **(불완전 취업자)** 2020년 2분기 이후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이 적어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증가세

* 실제 취업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통계청)

- (전체) 2021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1분기보다 38.0만명 감소했지만, 불완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5.2만명 증가

-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불완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소규모 사업장 취업자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

⇒ 2021년 1분기 증가한 전체 불완전 취업자 25.2만명 중 84.1%(21.2만명)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불완전 취업자가 차지(전년동기비)

⇒ 2021년 1분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취업자 수는 32.5만명 줄어든 반면, 불완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1.2만명 증가.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불완전 취업자 수는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그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전년동기비)

< 표 11. 전체 취업자와 사업장 규모별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증감(전년동기비) 추이 >

구분	전체 취업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소계)			그 밖의 취업자(소계)	
		1~9인	10~299인	300인 이상		
2019.1q	17.7만명	11.6만명	6.2만명	5.5만명	-0.1만명	6.2만명
2019.2q	23.7만명	13.6만명	9.3만명	4.4만명	-0.1만명	10.1만명
2019.3q	36.6만명	11.6만명	7.0만명	4.4만명	0.2만명	25.1만명
2019.4q	42.2만명	11.5만명	7.4만명	4.0만명	0.1만명	30.7만명
2020.1q	28.8만명	17.8만명	14.4만명	3.3만명	-	11.0만명
2020.2q	-40.7만명	42.7만명	30.9만명	10.6만명	1.2만명	-83.4만명
2020.3q	-31.4만명	37.1만명	25.9만명	9.7만명	1.5만명	-68.5만명
2020.4q	-44.1만명	37.7만명	27.8만명	8.3만명	1.6만명	-81.7만명
2021.1q	-38.0만명	25.2만명	21.2만명	2.6만명	1.4만명	-63.2만명

주 : 1. ‘-’는 ‘천명 단위에서 증감 없음(전년동기와 동일)’을 의미

2. ‘그 밖의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에서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뺀 수치(통계청)

3.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최근 동향)**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4분기(2020.2q~2021.1q) 연속 줄어들면서 민생의 어려움 가중. 다만 2021년 3월은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영향으로 고용이 2020년 3월 이후 13개월만에 (+)로 전환했으며, 올해 4월 이후에도 기저효과로 고용이 수치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고용 감소(전년동월비)
- **(고용 흐름 특징)**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며 전반적 고용이 질적으로 부진하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가 증가하며 구직난과 고용불안 심화
- ①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이끈 신규채용)**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2021년 1분기에 다소 늘었으나, 이는 상용직이나 청년층이 아닌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과 정부 일자리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
- ※ '21년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는 '20년 1분기보다 20.6만명 감소했으나, 근속 3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은 오히려 3.6만명 증가. 다만 신규채용 증가(+3.6만명)는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주도
- ▶ '21년 1분기 신규채용(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
[종사상지위별] (임시·일용직) +3.7만명 (상용직) 증감없음
[연령대별] (60세 이상) +6.5만명 (60세 미만) -2.9만명
- ② **(고용의 질적 부진)** 코로나19 충격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전체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반적 고용이 질적으로 부진
- ※ 최근 4분기('20.2q~'21.1q) 연속 전체 취업자가 감소(평균 -38.6만명)하는 상황에서도 같은 기간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평균 3.0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③ **(구직난과 고용불안 심화)** 구조조정 등으로 비교적 구직기간이 짧고 1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구직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근로시간이 적어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불안전 취업자도 늘어나며 고용불안 심화

- ※ '21년 1분기 증가한 실업자 21.8만명 중 85.3%(18.6만명)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 또한 늘어난 실업자 21.8만명 가운데 80.3%(17.5만명)가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전년동기비)
- ※ '21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38.0만명 감소한 반면, 불완전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오히려 25.2만명 증가(전년동기비)

□ **(개선방안)**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최근 경제 상황(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 >

- ▶ '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나 주요기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전기비 +1.6%, 전년동기비 +1.8%** 기록.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 19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GDP수준 회복(기획재정부, '21.4.29)
- ※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 한국은행)
 - [전기비] -1.3('20.1q)→ -3.2('20.2q)→ 2.1('20.3q)→ 1.2('20.4q)→ **1.6('21.1q)**
 - [전년동기비] 1.4('20.1q)→ -2.7('20.2q)→ -1.1('20.3q)→ -1.2('20.4q)→ **1.8('21.1q)**

① **(민간부문 활력 증진)** 2021년 2분기 이후 고용이 수치상으로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기저효과 같은 착시효과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 회복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켜야 함.

- ※ 규제 신설에는 신중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함. 규제 신설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美 트럼프 정부의 '2-for-1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같은 규제관리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고용보험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어 반복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고용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 비율을 높여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함.

- * 일정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횟수를 제한(例. 3년 내 3회 이상 수급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